

물뽕물회·물뽕치킨부터 마약김밥·마약떡볶이까지...

마약 용어 일상화...어긋난 상술 걱정된다

무분별 사용에 경각심 무너져
아동·청소년 긍정적 인식 우려
마약사범 증가 부추길 수도
사용 금지 국민청원 잇따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김기모(52)씨는 지난 1일 친구와 함께 집 근처 횡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메뉴 중 하나가 '물뽕 물회'였기 때문이다.

식당주인은 '물뽕 물회'와 '일반 물회'의 차이점을 묻는 김씨의 질문에 "(마약처럼) 중독성을 느낄 만큼 맛있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뽕'이라는 단어가 음식 이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어린 아이들이 보고, '물뽕-맛있다'라고 인식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은(4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도 "최근 초등학교 딸과 함께 분식집을 갔다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메뉴가 있어 당황했다"면서 "딸에게 마약이란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설명해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 신호를



'물뽕물회' 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광주시의 한 횡집.

줄 수 있는 마약 관련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물뽕' 등 마약 이름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광주·전남에서 이를 상술(商術)로 악용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은 상품 홍보수단으로 '물뽕물회·물뽕치킨·마약배게' 등 마약을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하는 '마약 네이밍' (제품명을 붙이는 일) 기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마저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식음료 및 제품광고에 마약 단어 사용 제한 요청' 등 마약류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청원자들은 마약 관련 명칭이 음식뿐 아니라 생필품에도 파고들고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칫 마약에 대해 좋은 이미지로 여길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도 비슷한 내용의 일반 제안만 8건이 나 제기돼 있다.

실제 광주에서도 일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나 물뽕 등 마약 관련 이름을 붙인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마약 네이밍' 제품이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허물고 있으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관련 용어가 들어간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상표 등록 없이 '마약 네이밍' 기법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대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음식 등에 마약을 붙여 사용하더라도,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면서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4년 54명·2015년 83명·2016년 141명·2017년 123명·2018년 15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기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실장은 "어린 시절부터 '마약 네이밍' 제품을 접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고 호감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 "조만간 '마약 네이밍'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10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당일 선착순 배부

법원이 오는 10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장동형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

(38석) 방청권도 이날 함께 배부한다. 형사소송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전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해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펠린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에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왜곡 지만원씨 2심도 손배 책임 인정

광주고법 "95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담은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5)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고법판사 김무신)는 "지난 31일 5·18 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확실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라고 주장했지만,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 여부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를 출간했다.

5·18 단체 등은 지씨가 컬러 화보를 통해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폭동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는 5·18단체 4곳에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진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5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2016년 뉴스타운호의 발행을 통해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한 2017년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금을 미루다가 5·18 기념재단 측이 계좌 등을 압류 조치하자 최근 판결 금액과 이자 등 1억8000만원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본격 낚시·조업철 해상사고 잇따라

부안서 어선 전복 3명 사망
완도서 바다 빠진 30대 구조

본격적인 여름 조업철과 낚시철을 맞아 해상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40분께 완도항 제 1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A(32)씨가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바위를 붙잡고 버티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에는 부안군 위도 북쪽 9km 해상에서 7.93t 어선(승선원 4명)이 전복돼 3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구조대는 오전 6시 15분께 사고 해역에 도착, 선박 안에서 의식을 잃은 선장 B(45)씨 등 3

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베트남 국적 선원 1명은 뒤집어진 선박 위에서 8시간을 버틴 끝에 인근을 지나가던 어선(한일호)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스크루에 페로프가 감겨 전복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11시께에는 진도군 진동도 서쪽 20여m 해상에서 줄을 운항으로 암초에 얽혀 좌초된 9.77 t 어선이 구조됐다. 선원 등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낚시객이 어선이 증가하며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경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신나는 버블쇼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환경보호를 알리는 버블쇼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제철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1명 사망·1명 부상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포스코 제철소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포스넵 정비협력업체인 태영 ENG 직원 서도(62)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오후 6시10분께 숨졌다. 함께 작업장에 있던 포스코 소속 직원 김모(37)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

다. 이번 사고는 포스넵 (이차전지 소재인 니켈을 추출하는 설비)파일럿 설비의 환원철 탱크 상부에서 태영 ENG 직원 2명과 포스넵 직원 1명이 벨트 교체용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대학 도서관 열람실서 상술 절도 4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금품을 훔친 지모(46)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시가 80여만원 짜리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같은 대학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11회에 걸쳐 23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지씨는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열람실에 책을 펴놓고 변행 대상을 몰래 훔쳤으며, 학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가방과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여 전 이 대학을 중퇴한 지씨는 동종범죄 7범으로, 지난해 10월 출소 후 훔친 돈으로 PC방·만화방·속박업소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의 밭에서 죽순 캐다 발각된 할머니들 "주인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죽순 밭에서 죽순을 무더기로 캐던 70대 여성 2명이 발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서행.

○...2일 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A(여·68)씨와 B(여·74)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한 죽순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죽순 50kg(시가 30여 만

원)을 캔 뒤 주무 4개에 담아 옮기던 중 "누군가 죽순을 훔치고 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은 발주인 C(60)씨에게 들켰다.

○...특수경찰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 등은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자녀들과 나눠먹으려 죽순을 캐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7596	1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로로129, 202동 11층 107호1열안호권스빌2차아파트 159,804㎡	65,000,000	아파트
2018타경 7949	1	영암군 영암읍 영남1길20, 8층 906호 [그린하이빌] 59,254㎡	78,000,000	아파트
2018타경 8003	4층	무안군 삼향읍 남안4로50, 12층 102동 1204호 [골든 스위트] 59,96㎡	192,000,000	아파트
2018타경 6786	1	목포시 용당동 960-219 155㎡ 목포시 신성로 152번길 26 1층33.3㎡ 제49.95㎡ 2층사무실83.25㎡ 3층83.25㎡ 제외의 주택 16.5㎡	210,935,250 210,935,25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공부상 1층도농주역, 소매점, 음식점이나 현상도농주역, 2층사무실등이나 현상주역
2018타경 7536	1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1134 964㎡ 동소 1134-3 1258㎡ [물건번호1:공부상전이나 매각대상인채무자소유의비닐하우스4동 소재항, 일부는작도구역지족, 공부상의미등 기타등지정고110.88㎡는말실림]	41,940,400 41,940,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적1[해운리1134] 일부농로, 지적경계선상의과수목포함하여매각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8072	1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산61 5752㎡ [장은형 지분4분의1전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임야	38,826,000	행시이며, 분묘소 재여부불분명
2018타경 8133	1	신안군 안좌면 남강리 384 3974㎡	전	47,6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3478	1	신안군 신의면 하대동리 산162 16760㎡ [김원아 동헌지분296/3000전부]	임야	1,322,920	해안절벽에위치해 인근근거리까지만 출입가능
2018타경 8348	1	사용본거지: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 로 205 등적번호:99서3887 차명:FM 6x4 Hu b 트랙터 연식:2011	자동차	80,000,000	무관장소:무안군 일로로지정리535
2018타경 53478	2	신안군 장산면 오름리 794-1 19107㎡ [김동원 현지분4628/19107전부]	임야	41,652,000	현황은잡종지임

●공과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소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매수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받았던 매각대금에 상환한다. 불명확한 변경으로 인한 보상비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② 공과가 민사법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상환되는 경우 그 공과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로 본다.
3. 매각기일 : 2019. 6. 17. [월] 10:00
4. 매각결정기일 : 2019. 6. 24. [월] 14:00
5.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 ① 입찰보증금: 최저의 기입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부에 붙여 발송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0%(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발행의 자기자금 또는 현금 중의 일부를 현금으로 입찰보증금 제출할 경우 매수신청을 증명하여 된다.
- ② 2인 이상 공모: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제도의 규정과 기일을 약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이 공과로 공과를 공과할 때 최고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 ⑤ 최고매수인신고: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3인 이상 매수신청인의 최고매수인신고는 매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과: 공과에 관한 사항은 매각물건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⑦ 소유권 이전 및 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기입사항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매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매각대금: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⑨ 공과: 공과에 관한 사항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⑩ 주의사항: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⑪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⑫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⑬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⑭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⑮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⑯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⑰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⑱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⑲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 ⑳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설명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2019.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